

근대 전환기 지방 유림의 한시에 나타난 이산 체험과 가족애의 일면

한길로*

고암(鼓巖) 황병중(黃炳中)을 중심으로

초록 ‘근대 전환기’라는 복합적인 혼란 속에서 전통 문인들은 새로운 대응방식을 모색했고, 이는 유인석(柳麟錫)이 제시한 “처변삼사”(處變三事)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적확히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인사들도 상당했다. 전남 광양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친 고암(鼓巖) 황병중(黃炳中, 1871~1935) 역시 이러한 인물이었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 말엽 직전까지 펼쳐진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으로 얼룩진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는 생애였다. 그는 당숙과 동생의 거의로 인해 가족들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져 긴 시간 동생과 헤어져야 했고 친척들은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상당수의 지인들이 의병장으로 산화하거나 자결을 택했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시는 이 모든 혼란들을 수습하며 ‘남아있는 자’ 혹은 ‘살아남은 자’의 몫을 충실히 이행해야 했던 당대 지식인의 삶과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시에는 식민 지배의 폭력과 가족들의 이산에 따른 통탄, 또 가문 공동체의 와해를 보며 이를 극복해보려는 의지까지가 선명히 피력되어 있었다. 즉 ‘강제징용·망명·이민·추방’의 예처럼 국외로 떠난 자가 아닌 국내에서 전개된 가족 이산의 아픔과 이를 극복해내기 위해 분투했던 굴곡진 삶의 경험이 구체적이고도 꼭진히 담겨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한시 작품은 의고(擬古)적인 음풍농월이 아닌, 당대의 지성 및 민족적 과제와 동행하며 ‘호흡’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시’라는 공간 속에 담기지 않거나 작품 너머에 있는, 더욱 모질고 굴곡졌을 당대 지방 민초들의 삶과 내면의 한 단락까지를 가늠하게 만든다.

주제어 황병중, 『고암집』(鼓巖集), 이산문학, 근대 한문학, 근대 한시

* 길림대학교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1. 서론

전통 지식인에게 이른바 ‘근대 전환기’의 현실은, 사실상 새로운 층위의 국면이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정치·사회적 혼란과 매우 상이했다. 소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에 고수했던 ‘유교적 세계관’에 다대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 피탈로 인해 굳건해 보였던 왕조 체제는 강제적 해체의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국토 역시 이민족 일본에 의해 피탈되어 갔다. 이는 바로 그들이 구축하고 지향했던 이상의 뿌리를 흔드는 대혼란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당시 전통 지식인에게는 기존과는 차별되는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기는 공자가 언급한 ‘유도즉현, 무도즉은’(有道則見, 無道則隱)의 정신을 계승한 ‘진’(進)과 ‘퇴’(退)의 출처관(出處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¹ 즉 무도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조야로 물러나 선현의 도를 바르게 체득하여 그 교훈을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언수후”(立言垂後)가 아닌 새로운 대처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다.² 이러한 고뇌의 큰 줄기는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제시한 “처변삼사”(處變三事)로 압축할 수 있다.³

‘처변삼사’처럼 새롭게 출현한 일종의 대응 준칙은 ‘유도’(儒道)에 대한 수호의지와 일제와의 저항 혹은 비타협을 기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만

1 『논어』(論語) 「태백」(太伯).

2 김동협(2000), 「이황이 지은 행장을 통해 본 그의 출처관과 인생관」, 『동방한문학』 18, 동방한학회, p. 119.

3 『의암집』(毅菴集), 「답호서제공」(答湖西諸公), “卽與士友議得處變三事, 曰舉義而掃清也; 去之而守舊也; 自靖而遂志也.” [박준호(2004), 「의암 유인석의 한시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1, 대동한학회, p. 39] 참고로 유인석은 ‘거의소청’(舉義掃清),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은 ‘거지수구’(去之守舊),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은 ‘자정수지’(自靖遂志)를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할 수 있다.

의 방식으로 이러한 신념을 실천으로 옮긴 인물들 역시 상당했다. 즉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걸맞은 ‘시중’(時中)을 택하며 식민지배라는 무도의 시기를 살아나간 무명의 지방 유림들 역시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전남 광양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친 고암(鼓巖) 황병중(黃炳中, 1871~1935) 역시 이러한 인물이었다. 즉 그는 처변삼사의 구도 속에 적확히 해당되지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불의의 시대와 맞서다 생을 마감한 지방 유림이었다.

황병중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그의 전체적인 생애를 조망하고 한시에 나타난 주요 특성들이 언급되었다.⁴ 해당 연구는 가족이 포함된 ‘지사’(志士)들의 순절을 향한 그의 내적 번뇌와 통한이 드러난 한시의 면모를 분석하는 동시에, 식민체제에 대한 불온을 ‘자칭’하며 피려된 유민의식과 자정(自靖)의지를 문학적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그의 생애 궤적과 연관된 한시의 전반적인 지취(志趣)를 담고 있지만, 문학세계의 구체적인 면모와 여타의 특성에 대한 언급은 다소 소략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고에서는 황병중 시 문학의 면모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려 한다. 식민지 시기 전통 지식인의 삶과 내면을 여실히 담고 있는 그의 한시를 좀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조명함으로써 ‘20세기 한시’의 특징적 국면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특히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반발에서 야기된 가족들의 ‘이산’과 그 과정에서 토로된 가족애를 향한 그의 내적 정서에 주목하려 한다. 이는 그의 삶과 문학 세계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성이자, 이전 세기의 한시 작품에서 발견되기 어려웠던 근대기 한시의 주목

4 한길로(2023), 「고암 황병중의 삶과 시 세계 고찰」, 『서강인문논총』 68,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pp. 5-27.

할 국면이기 때문이다.⁵ 작품들은 ‘강제징용·망명·이민·추방’⁶과 같은 국외로 떠난 자가 아닌, 국내에 ‘남겨진 자’에게 전개된 가족 이산 체험과 그 내면을 담고 있어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본고는 그의 한시 작품을 ‘수명이 다한 글쓰기를 향한 단순한 취향이나 시대착오적 글쓰기’⁷로 간주하기보다, 식민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이 시기 한시의 특성과 전통 지식인의 내면을 부각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

2. 체감되는 식민지배의 수난과 직면한 이산의 애한(哀恨)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과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 등에게 성리설을 사사받은 그는, 이후 향리에 머물며 이를 천착하는 데 주

- 5 그의 문집 『고암집』(鼓巖集)에는 166제 200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그의 가족과 연관된 한시는 만시를 포함, 도합 19수이며 작품은 모두 권1에 수록되어 있다. 수량으로 보면, 가족과 관련된 작품이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비통한 내면과 시대상을 대단히 잘 반영하고 있어 그의 시 세계의 중요한 일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적 대상	시제(참고로 ※은 경성헌병대에 갇힌 채 작성된 「衣帶諸詠(八首)」 안에 수록된 세부 시제이다.)
부모 및 형제	避禍留虎谷數月送妻子歸鄉遂上京城, 壽母回甲, ※上父母, ※上本生父母, ※寄弟炳學, 在京將營西間島行作此寄家中, 憶本生弟英文, 平壤獄中見弟英文.
처 및 자손	※贈妻吳氏, ※贈子河喆, 洗孫兒望久.
친척	喜族叔潛窩公自濟州還飛閣, 輓白下族叔, 挽堂叔珣模, 寄族侄宗玪, 送小雲炳郁族兄移北間島, 挽小雲族兄炳郁, 哭明窩族叔鎰模, 奉送小竹族兄炳泳遠遊.

- 6 정현주(2003), 「이산에 의한 정체성의 문제: 식민과거 기억하기와 정체성 확립」, 『수행인문학』 33,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p. 68.
- 7 이미진(2023), 「20세기 제주지역 지식인 굴천 이일해, 한시로 쓴 인생의 기록」, 『장서각』 50, 한국학중앙연구원, p. 112.

력했다. 일면 평범하다 할 수 있는 그와 그의 주변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요동치며 전개된 결정적인 계기는 1908년 ‘광양의병’의 항전이었다. 당시 그의 동생 황병학(黃炳學, 1876~1931)⁸과 당숙 황순모(黃珣模, 1877~1908)⁹는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가문의 수난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이산’ 역시 전개된다.

무력에 의한 가족들과의 ‘이산과 해체’는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수난과 고통이었다. 먼저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인해 의병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황순모는 일경에 ‘피살’당하고 말았다. 또한 이미 ‘비도’(匪徒)로 규정된 동생 황병학은 일제에 쫓기어 고향을 떠나 전국을 전전해야 했다.¹⁰ 동시에 황씨 일가 및 친척을 향한 일제의 협박과 위협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우선 그는 처와 함께 고향 광양에서 인근 곡성으로 피난 갔다가 홀로 서울로 떠나게 된다. 이렇듯 일가족의 ‘이산’은 삼시간에 이뤄졌다. 아래는

-
- 8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황병학[초명 영문(英文)으로 불리기도 했다]은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에 격분, 의병 조직을 도모하며 기회를 보던 중 1908년 7월 26일 당숙 황순모(黃珣模)·백학선(白學善)·한규순(韓圭順)·고건(高堅) 등 뜻을 같이하는 의병들과 포수 1백여 명을 모아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광양의 백운산에 본진을 둔 의병은 광양과 장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했다. 그러나 일제의 소위 ‘남한대토벌작전’의 영향으로 더 이상 의병운동 전개가 불가능하자, 국권회복을 도모하며 도처를 전전했다. 1919년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적극 참여했고 이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23년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로 오던 중 일제에 체포되어 지역 3년 형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되었다. 그의 일생 및 의병항전과 관련된 기록 및 작품들은 『의사 황병학』(김남 편, 전광산업사, 1983)에 자세하다.
- 9 광양 출신의 황순모는 당칭(堂姪)인 황병학(黃炳學)과 함께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광양의 백운산(白雲山)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1908년 일본인 배를 습격하여 격침하고 무기를 노획하기도 했지만 의진 해산 후 은신해 있다가 그해 10월 일본 헌병대에 붙잡혔다. 취조 중 탈출을 기도하다 결국 피살당했다.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참조].
- 10 황병학의 의진에 동참하며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던 김응백(金應伯) 의병은 붙잡힌 후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김상기(2015),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연구』 51-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48-149]. 즉 황병학의 피신은 일제에 체포되어 순국하는 것보다, 그들의 추적을 끝까지 피해 후일을 도모하려는 저항적 의도였다.

상경 당시에 작성한 그의 시이다.

화를 피해 호곡에 수개월 머물다가 아내와 아이를 고향에 돌려보내고
 마침내 경성에 가다(避禍留虎谷數月, 送妻子歸鄉, 遂上京城)

견두산 ¹¹ 아래의 요계(蓼溪) 동쪽	犬頭山下蓼溪東,
새벽빛 밝아오자 풀길과 통하누나.	曉色方明艸路通.
이 나라를 끝내 누가 구할 수 있으랴,	邦家畢竟誰能救,
운명은 본시 내게 이리도 박하단 말인가.	命道元來我不豐.
이 처지의 신심(身心)을 탄식하며 해외로 넘어가려는데	堪歎身心營海外,
차마 처자마저 난리 통으로 들이는 것 볼 수 있겠는가.	忍看妻子入難中.
차디찬 집에 머리 세신 네 노인이 남아 계시니	鶴髮寒堂臨四老,
흰 구름 날아가는 곳마다 끝없는 눈물 쏟아지겠네.	白雲飛處淚無窮. ¹²

황병학이 포함된 광양의병의 무장투쟁은 1908년 8월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이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가중되어 의병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동월 5일 황병학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기도 했다. 그가 치료도 못 받은 채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일경은 황병학의 가족들에게 자수를 유도하며 그가 오지 않는다면 “노약을 불문하고 모두 죽이겠다.”라며 겁박했다고 한다.¹³ 9월 25일에 창작된 위의 시는, 당시의 다급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서두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밤새 산을 넘

11 전라북도 남원시의 수지면과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 고도는 775m이다.

12 黃炳中, 『鼓巖集』 卷1, 시주(詩注)에 “戊申(1908)九月二十五日”이라는 언급이 있다. 참고로 시에서 언급한 ‘견두산’은 남원과 구례 사이에 있는 산이고 요계는 남원의 한 지명으로 즉 요천(蓼川)이다. 또 그가 언급한 ‘사노’(四老)는 본가와 입승(入承)된 백부의 부모를 지칭한다.

13 양주동(1983), 「의사 약전」, 『의사 황병학』, 전광산업사, p. 74.

다가 아침을 맞은 그의 심사가 드러나 있다. 이어 일정에 쫓기는 신세가 된 그가 서울을 건너 해외 이주까지를 염두 해야 할 만큼 당시 상황은 악화일로였음을 보여준다. 작자는, 처자마저 해외로 이주한다면 남은 부모님 봉양과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기에 홀로 이역으로 떠날 것을 고려하며 애달파하고 있다. 이어진 두 부모 생각에 그의 비탄은 더욱 깊어지는데, 결구의 ‘백운’(白雲)은 그의 고향 광양을 대표하는 산 이름이기도 하여 지나가는 흰 구름을 볼 때 그가 어떤 시름에 잠길지 예측하게 한다.

그렇게 홀로 서울을 찾은 그는 이곳에서 추이를 살피며 해외 이주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이 노모의 회갑이 찾아왔다. 부인을 돌려보내고 홀로 상경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10월 30일의 일이었다.

경성에서 연로한 어머니의 회갑일을 맞으며(京城當老親回甲日)

환갑날 아침별은 어머니 계신 북당으로 올랐겠으나 舊甲朝陽上北堂,
아들과 손자는 난리 피해 각기 정신없이 창황하네. 兒孫避亂各蒼黃.
당장 눈앞의 참혹한 광경은 면했다 할 수 있겠으나 眼前慘境雖云免,
돌아와 얼굴 비며 어느 날에 축수의 술잔을 올리겠는가. 反面何時上壽觴.¹⁴

시에는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 홀로 경성에 머물던 그의 고독과 빈민, 애통과 비탄의 감정이 대단히 면밀하게 담겨 있다. 상술한 것처럼 그는 해외 이주까지를 염두하고 있었기에, 다시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아 노모에 대한 그리움과 죄스러운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당장 서울로 몸을 피했기에 큰 화는 면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평생 한 번인 모친의 회갑연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심정 그 자체가 ‘화’가 되어 그의 내면을 어지럽히고 있다. 평소 그는 노모

14 黃炳中, 『鼓巖集』卷1, 시주에 “戊申十月十三日.”이라고 표기했다.

의 회갑을 맞아, 오랜만에 일가친척 및 이웃들이 함께 모여 장수를 기원하는 술을 올리고 또 덕담과 수시(壽詩) 등을 주고받는 온정 넘치는 하루를 상상하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들이닥친 현실은 실로 겨우 물리적인 ‘참경’(慘境)을 면한 것일 뿐, 내면의 참경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부모가 물려주신 유체(遺體)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으로서 효를 다하고, 또 의병장의 가족이자 유자로서의 신념 또한 고수할 수 있을 ‘장소’로 떠나려는 의지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었다.

한양에 머물며 서간도행을 준비하다가 편지를 써서 집안에 부치다

(在京將營西間島行作此寄家中)

멀리 선조들의 마을인 백운산의 별을 그리워하나니	遙憐先里白雲陽,
소나무 두른 외딴 마을에 대나무가 집을 감싸고 있었지.	松繞孤村竹繞堂.
막막한 풍진 세상에 집안 소식 멀기만 할 테고	漠漠風塵音信遠,
첩첩한 산해에선 꿈속 닛만 길이 맴도리라.	重重山海夢魂長.
까마귀 보면 부모님 생각에 흐르는 눈물 막기 어렵고	瞻烏難抑思親淚,
기러기 소리엔 아우 마음 떠올리며 애달파하겠구나.	聽雁空悲憶弟腸.
어찌 남쪽의 고운 곳으로 날아갔다가	那得南昌飛去楫,
펼럭이며 돌아와 국화 향기 되갚아 주리오.	翩然還償菊花香. ¹⁵

이제(夷齊)와 선유들의 절조를 계승하고 유학의 맥을 부지하고자 순교의 길을 자처한 전우의 순국은제자들의 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¹⁶

15 黃炳中, 『鼓巖集』 卷1.

16 유영봉(2017), 「간재 전우가 남긴 철리시 연구」, 『한문학보』 37, 우리한문학회, p. 323. 예컨대, 간재의 문인 울산 전상무(栗山 田相武, 1851~1924) 역시 서간도 이주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의령 출신의 그는 1896년 의령창의장(宜寧倡義將)으로 활동했고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에서 참여하며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다. 1913년 그 역시 서간도 이주를 염두하며 일대를 살피고 돌아왔으나 끝내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김정·한

그의 문인 가운데 상당수는 국외로 몸을 옮겨서라도 이를 실천하려 했는데 황병중 역시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시는 서간도로 떠날 계획을 옮기려던 중, 내면에 움트는 복잡다단한 감정을 여실히 담고 있다. 따뜻한 고향 마을의 온기와 집 밖의 풍경을 뒤로한 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정을 준비하는 그의 처연한 심사가 고스란히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해 연말, 결국 그 또한 일경에게 피체되었고 헌병대에 압송되어 수인이 되면서 그의 해외이주는 미수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이산’이 이제 ‘죽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자, 그는 「의입명사」(擬立命辭)를 지어 이를 천명으로 여기며 순순히 받아들여려는 의지를 피력했다.¹⁷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머지않아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가족과의 분리와 단절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뒤, 황병중은 고향 친척을 서간도로 진송하게 된다.

서간도로 떠나는 족형 소운 황병옥을 진송하다(送小雲炳郁族兄移北間島)

북풍에 말머리 일으키셨기에	北風起馬首,
어느 곳으로 가려는지 물었다네.	爲問欲何之.
흰 구름 조각조각 떠다닐 때	白雲飛片片,
푸른 솔잎만 섬들에 가득 떨어지리라.	蒼髻落滿墀.
친한 벗들과도 애석히 이별했는데	朋友且惜別,
종족이 어찌 더 비통하지 않으리오.	宗族奈更悲.
예전에는 굴림(橘林)에 가시더니	在昔橘林行,
또 다시 같은 천애의 땅으로 떠나시는가.	還是同域移. ¹⁸

길로(2023), 「근대 지방 유림의 기행문에 나타난 현실 인식 고찰」, 『한문족어문학』 101, pp. 197~227].

17 한길로, 앞의 논문, p. 10.

18 黃炳中, 『鼓巖集』 卷1. 참고로 황병옥의 자는 진문(晉文), 호는 소운(小雲)으로 광양 사람이다. 순종 1년(1907) 탁지부 세무관·재무부 재무관을 지낸 그는 지역 인사인 매천 황현과 교류했다[『梅泉集』 卷1, 「(壬辰稿)謝黃少雲炳郁送紙」]. 또 운양 김윤식과도 친분이 있

(下略)

시를 통해 그는 고향을 떠나는 족형의 상황을 떠다니는 조각구름으로 묘사하였다. 또 창염(蒼髯)은 소나무의 별칭 혹은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용한 시에서는 절의를 가진 선비들이 고향을 떠나 황망해진 고향 풍경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굴림은 곧 제주도인데 황병욱은 그곳에서 김윤식과 교류하기도 했다. 시는 52구 260자의 장문으로, 거듭되는 이산과 이별의 정서를 담고 있다. 흰 구름처럼 떠나는 그를 차마 잡지 못한 채, 그저 쓸쓸히 이별에 임해야 하는 ‘남은 자’의 비통한 심사를 담고 있다. 물론 그 역시 족형이 그곳으로 떠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하여 시를 통해, ‘장백산 아래에는 일월만이 밝게 비춘다고 들었다’며 혼탁한 세상을 피해 독야청청(獨也靑靑)하고, ‘세상의 이해득실 등을 따지지 않는’ 굽힘 없는 삶을 기대한다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¹⁹

한편, 그에게 ‘동생’은 식민통치의 수난과 이산의 가장 큰 상징이었다. 1908년 기의 이후 그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고 1919년 이후에는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지방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간혹 그에게서 편지가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1916(丙辰)년 11월에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문집에 전한다. 편지에서 그는 약 10년간에 걸친 동생의 행적을 부평초를 의미하는 “평봉(萍蓬)”으로 명명하며 “부모님의 혈육이 나와 너뿐으로, 나는 큰댁[大宗]을 모시어 네가 유일한 후사인데 지금 이렇게 작은댁[小宗]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이 통곡을 어찌한단 말이냐!”²⁰라며 안타까운

어 전남 지도(智島) 및 제주에서 그를 도우며 문인이 되었다. 1914년 『운양집』 초간본 발간의 편집을 맡았고 이후 북간도로 이주했다. 『운양속집』(雲養續集) 권1에 「送黃小雲稅官炳郁移居北間島」가 전한다.

19 黃炳中, 『鼓巖集』 卷1, 「送小雲炳郁族兄移北間島」, “聞說長白下, 日月獨熙熙. … 利害何足算, 得失不復遷.”

20 黃炳中, 『鼓巖集』 卷2, 「寄弟炳學(丙辰十一月)」, “爾萍蓬十年, 只此一點, … 父母血肉, 只有爾與我, 而我出奉大宗, 爾獨嗣後, 今則絕于小宗, 慟哭奈.”

이산의 비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약이 없는 이별에 대한 감상(感傷)의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갔다.

본가 소생의 아우 영문을 떠올리며(憶本生弟英文)

우리 서로가 자주 만나 다시 화평히 담락(湛樂)해야 할진대
 어찌다 열여섯 해 동안 떨어져 지내는 지경이 되었더냐.
 요동의 학은 아련히 꿈속을 노닐테나
 바다 건너의 소식 막막하여 그리움이 끊어질 듯하구나.
 성쇠(盛衰)라 한들 근왕(勤王)의 일을 감히 잊으며
 이험(夷險)의 길에 어찌 자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몇 번이나 친히 분구(分灸)의 처지를 당하라,
 시 짓기 마치기도 못했는데 눈물 두 줄기부터 흘러내리는구나.
 源源相對復湛樂,
 何至分離十六秋。
 遼鶴依依遊夢裏,
 海鴻漠漠斷思頭。
 盛衰敢忘勤王事,
 夷險何能自我求。
 幾度親當分灸地,
 題詩未了淚雙流。

위 편지에서 언급한 ‘십 년’을 참고해보면 시에서 언급된 ‘십육추’(十六秋)는 대략 1922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시기 황병학은 요동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분구’(分灸)는 곧 땀을 나누는 근심이라는 의미로 형제간에 고통을 서로 나누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시는 소식 없는 동생을 떠올리는 그의 무거운 마음과 함께, 요원해진 조국 독립을 ‘쟁취’하고자 헌신하고

있을 동생을 향한 격려와 지지의 감정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즉 ‘홍망성쇠’에 따라 나라에 대한 지조가 변하거나, 세상사의 평탄과 험난[夷險]에 따라 자신의 지향을 바꾸지 않았던 그의 지기(志氣)를 멀리서나마 격려하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이렇듯 시는, 하나뿐인 아우를 향한 그리운 마음과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았지만, 결국 부치지 못할 시를 짓고 홀로 애달파하는 그의 내면이 생생하게 피력되어 있다.

1923년, 황병학은 국내로 돌아왔다. 하지만 형제가 비로소 재회한 장소는 다름 아닌 ‘평양형무소’였다. 군자금 조달이라는 임시정부의 밀축(密囑)을 받고 국내로 돌아온 황병학은 압록강을 건너다 일경에 피체되었고, 평양형무소로 이송되어 3년형을 받게 된다.²¹ 20년에 가까운 형제의 긴 이산은 새로운 양상, 즉 더욱 애처롭고 비통한 형태로 전개되고 말았다.

평양 옥에서 동생 영문을 만나며(平壤獄中見弟英文)

형제가 서로 떨어져 지낸 20년 세월에	兄弟相分二十年,
오늘 옥중의 연고 생길지 누가 알았으랴.	誰知今日獄中緣.
돌아갈 땐 두 부모님께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린단 말인가,	歸時二老何辭慰,
주르륵 두 눈물 흘림에 하늘이 사무치도록 한스럽도다.	雙淚漣漣恨徹天.

시에서 언급한 20년에 근거하면 시는 대략 1926년, 약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대단히 사실적으로 당시의 내면 풍경을 그려내고 있어, 수인이 된 동생과 부모를 대신하여 홀로 먼 평양까지 달려온 형 사이에 오갔을 감정의 파동이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옥중에서 고초를 겪었을 동생의 처참한 모습과 마주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철천지한(徹天之恨)’을 토하는 것뿐이었음

21 양주동(1983), p. 75.

을 자탄하고 또 인정하고 있다. 식민 지배가 주는 극심한 형제 이산의 고통이 처절한 원한이 되어 짓이겨진 그의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 시는, 당시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가족들이 감내했어야 할 통한의 수위를 가늠하게 한다.

이렇듯, 그의 작품은 국가의 상실이라는 미증유 현실과의 순응 및 타협을 거부했던 한 가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산하고, 또 그 이산의 상태에서 어떠한 내면을 견지하고 살아갔는지를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한 가족에 들이닥친 이산의 슬픔과 이로 인해 조각조각 참혹히 부서진 당사자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하 민족의 수난사를 가로질러야 했던 한 개인과 일가의 복잡한 내면을 담으면서, 시대적 혼란의 복판에서 있던 지방 전통 지식인의 행로를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3. 옥중에서의 분한과 가족 공동체 회복을 향한 염원

주지하듯, ‘정치·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식민지 현실에 놓인 한 개인은 오롯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한 가족 구성원의 선택과 행보에 따라, ‘큰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불운한 삶을 살거나 심지어 자신의 삶이 무참하게 밟히는 일’이 허다했다.²² 선현들이 쌓아온 학문을 묵묵히 전수하고자 했던 황병중 일가의 삶 역시 동생과 당숙의 기의를 계기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08년 일제의 압박을 피해 다급히 올라온 서울에서 결국 헌병에 피체된 그는, 죽음을 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온통 가족을 떠올렸고, 경성헌병대에 갇힌 상황에서 요대(腰帶)에 유언과 흡사한 시를 써서 모든 가족에게 남긴다.²³ 그의 나이 37세의 일이었다.

22 이동순(2017), 「한국현대사 속의 가족서사」, 『문화와 융합』 39-4, 한국문화융합학회, p. 333.

23 黃炳中, 『鼓巖集』 卷1, 「衣帶諸詠八首(戊申)」, “京城憲兵隊囚中, 置詩腰帶, 擬寄家中”.

먼저 두 부모에게 남긴 시를 살펴보자.

부모님께 올립니다(上父母)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종가 생각하시어 불초에게 명하셨는데
이제 하늘로 떠나 되시고 섬기게 되었으니 실로 찾아볼 겨를 없을 테지요.
예나 지금이나 효와 절 둘을 다하기 어렵기만 하여
홍은(鴻恩)을 부질없이 저버림에 비 오듯 눈물만 쏟습니다.
皇祖思宗命不肖,
移天服事實無間.
古今孝節兩難盡,
空負鴻恩涕淚漣.²⁴

본가 부모님께 올립니다(上本生父母)

까마귀나 새도 사사로운 정이 있어 반포(反哺)를 기약하는데
오늘 이 신세는 날짐승만 못합니다.
오직 이 몸 다칠까 걱정 끼쳐 드리며 많은 세월 보내셨으니
세상에 나보다 더 깊은 죄는 없을 것입니다.
烏鳥私情期反哺,
此身今日不如禽.
貽憂惟疾還多歲,
世上無如我罪深.²⁵

24 黃炳中, 『鼓巖集』卷1.

25 黃炳中, 『鼓巖集』卷1.

주지하듯, 유자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덕목은 ‘효(孝)’이다. 그렇다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교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역행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어, 고인들은 이를 ‘역리지척(逆理之戚)·악상(惡喪)·참척(慘戚)’이라 칭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놓인 상황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민족에 의해 자행될 고신(拷訊)과 참형까지를 고려해야 할 극단적인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인용된 시에는 『효경』에서 언급한 “불감훼상”(不敢毀傷)과 “입신양명”(立身揚名), 그 어느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선조가 머물고 있는 하늘로 떠나야 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원한(怨恨)이 관통하고 있다. 그가 할아버지의 명으로 종가로 간 것은 곧 그들의 후사를 잇는 동시에 ‘선조들의 뜻과 일을 누대로 잘 계승해 온 가문임을 보여주는 도덕적 표상’과도 같은 제사와도 연관된 것이다.²⁶ 그러나 제사는 고사하고 ‘반포지효’도 물거품이 된 현실에서 그의 감정은 ‘자괴와 비통’과 접맥되고 있다. 단 그의 처자에게 보내는 시에서는 사뭇 다른 감정의 결이 발견되었다.

부인 오씨에게 부치다(贈妻吳氏)

상투 틀고 쪽지며 서로 일흔 세월을 기약했거늘	結髮相期七十歲,
오늘 이렇게 중도에서 헤어질지 어찌 알았겠소.	那知今日半途分.
노부모 봉양과 자식 교육 모두 믿고 맡기나니	奉老教兒都信託,
우리 가문의 존망이 모두 그대에게 달렸구려.	吾家存替總由君. ²⁷

26 서정화(2021), 「유교의 禮學的 탐구를 통한 孝 사상 고찰」, 『민족문화연구』 9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 144.

27 黃炳中, 『鼓巖集』 卷1.

아들 하철에게 보내노라(贈子河喆)

그 이름을 중현(重珰), 자는 여심(汝深)으로 하고
 수일(守一)을 재명(齋名)으로 걸어두어 경계하지 않을 것이 없어야 하리라.
 몸을 삼가고 학업에 힘써 문호를 지켜야 할지니
 아버지의 오늘 이 마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거라.

重珰其名字汝深,
 扁齋守一莫非箴.
 謹身勤業守門戶,
 勿負阿爺此日心.²⁸

일종의 ‘유시’(遺詩)라고도 할 수 있는 위 두 작품에는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그가, 처자에게 남기려는 마지막 당부와 진심이 잘 드러나 있다. 각 작품은 7언 4구로, 원문은 단 28자에 불과하지만 부인과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부부와 부자의 인연을 더 나눌 수 없게 하는 깊은 설움을 포착할 수 있다. 단 부모에게 보내는 시에서는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불초의 비통과 통한을 대단히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처자에게 보내는 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긴 이별을 앞둔 부인을 향한 애정과 별리의 정을 담담히 표출하면서, 홀로 남게 된 부인을 향한 심심한 위로와 믿음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하였다. 또한 자식에게 미처 일러주지 못한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자’(字)와 ‘재명’(齋名)을 통해 차분히 환기시키며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죽음을 직면하며 나타난 애뜻한 사랑과 수심이 결합된 ‘연수’(戀愁)를 시 속에 담담히 녹여냈다.

위 두 인용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환란 속 그의 가장 큰 근심과 우려는

28 黃炳中, 『鼓巖集』卷1.

자신의 부재로 야기될 ‘가족(가문)의 존망’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상은 어떠한 상인지 또 그가 평소 가족들과 함께 어떠한 삶을 일구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아래의 시는 황병중이 품고 있던 가족상의 일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족속 잠와(潛窩) 공께서 제주에서 비촌 고향집으로 돌아오심을 기뻐하며
(喜族叔潛窩公自濟州還飛閣)

(上略)

종친 족속의 이번 행차 소식 듣고는,	宗族聞此行,
깜짝 놀라 웃으며 휘파람 불며 돌아왔다네.	忽驚還笑嘯.
떠날실 땀 공손히 읊하지 못했지만	拜揖失行次,
돌아오시니 기뻐하는 것에는 어른이나 아이가 따로 없구나.	歡然無老少.
소매 맞잡고 옛 터에 들어오셨으니	連袂入舊廬,
예속도 자못 신실해지겠구나.	禮俗頗恂恂.
곡식은 너른 들판에 가득하고	稻梁彌平野,
닭이나 개들도 사방에서 날뛰리라.	鷄犬動四隣.
후덕한 인정으로 천륜을 다하고	厚情極天倫,
한가로이 즐기다 보면 혼사도 이뤄지겠지.	餘樂及婚姻.
편안한 집은 예전 그때와 같을지니	安室如舊日,
이렇게 정겨운 친척 더 늘어 가리라.	從此益親親. ²⁹

식민 통치로 인한 강제적인 면과 함께 근대 전환기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유교 질서는 급속도로 흔들리게 되었다. 물론 가족의 거주

29 黃炳中, 『鼓巖集』 卷1. 참고로 그의 족형 잠와(潛窩)는 황진모(黃晉謨)로, 구례에 머문 그는 연재 송병선의 문인이다(李道復, 『厚山集』 卷22, 『社友錄』).

와 생활 양상의 변화 혹은 변형도 예외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전국이 균질적이기보다 지역별로 시간차’가 있었는데, 황병중은 이러한 것을 고수하고 존속해야 할 ‘자기 전통’으로 삼고 이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다.³⁰ 1897년(丁酉)에 작성된 위 시는 이러한 그의 의지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 떠나는 날, 별리의 애痛으로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것을 회상하며 돌아온 기쁨의 크기를 대비시켰다. 특히 그가 가족 일가와 함께 그려나갈 내일을 비교적 소상히 그려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속·후정(厚情)·천륜’과 같은 시어는 그가 구상하는 ‘가족상과 가족애’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바람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큰 부침을 겪게 된다. 물론 동생과 당숙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영향이 실로 지대하겠지만, 집성촌이라는 공간에 종친들이 함께 머물며 전과 같이 단란한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 농촌 마을은 식민 권력의 행정적 통치 단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율을 강제당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일제가 주도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편입되어 갔기 때문이다.³¹ 즉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구심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의 가문 역시 이와 유사했다. 그들 가문은 집성촌 비촌(飛村)의 유택(遺宅)마저 지키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말았다. 1916년 그는 비촌의 유택을 지키던 족질(族姪) 황종현(黃宗玪)에게 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선조 진사 공[필자 주: 즉 창원 황씨 후헌(後憲)을 이른다.]께서 처음 비촌에 복거하신 뒤 세월이 15년이 지나자 수백이 동서로 분거하였으나 오직 종현이 머물고 있었다. 이 선조의 유택을 지금 이전의 오파(五派)에서 종손들이

30 조명근(2023), 「근대 이행기 한국 지역사회 변동과 서원의 변용」, 『민족문화논총』 8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 103.

31 이진교(2014), 「일제강점기 마을사회의 동향과 동계의 역동성」,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p. 344.

대대로 지켜오다 중간에 종현이 받게 되었고 지손(支孫)들도 이곳을 사들여 살았는데, 6~7대가 지난 지금 다른 성의 소유가 되어 버렸다. 이 일로 종현은 우울해하다 병에 걸리게 생겼으니 어찌 종현만 그러하겠는가? 나 또한 옛 생각에 슬픈 마음 일어 이렇게 시를 부쳐 서로를 위로하노라.”라고 밝혔다.³² 그리고 시를 지어 자신의 내심을 전했다.

족질 종현에게 부치다(寄族侄宗玟)

연면(連綿)이 이어온 삼백 해의 봄을 노래하듯 곡하니 歌哭連綿三百春,
이 하루를 어떤 이와 더불어 보내야 할지 실로 어렵구나. 誠難一日與何人.
아침 찾아와 정원 속 풀들 바라보다가 朝來試看園中艸,
영취(榮悴)는 본래 내 몸에 있지 않았나 싫어라. 榮悴元非在我身.³³

연면은 ‘면면약존’(綿綿若存)하며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형용하고, 영취는 피었다가 지는 것으로 인간세를 포함한 성쇠(盛衰)를 비유한다. 시는 약 300년간 지켜온 종친의 터가 다른 성의 소유로 넘어간 현실을 비통해하며,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한 못난 후손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과 통한이 기저에 담겨 있다. 이에 당일 스스로의 모습은 자신의 집 속의 풀들과 같이 느껴져, 세상사의 흥성과 쇠락 앞에 그저 ‘무기력’하고 처량하게만 여겨진다.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의 영취 또한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탄식을 전하며 족질의 처지와 내면을 위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친족’이기에 나눌 수 있는 감정으로, 결국 시는 함께 구슬

32 黃炳中, 『鼓巖集』卷1, 「寄族侄宗玟」, “先祖進士公, 始卜飛村, 世已十五年過, 數百分居東西, 而惟宗玟所居, 是先祖遺宅, 前此五派, 以宗孫世守, 中間宗玟所蒙, 以支孫買居, 至六七代, 今爲他姓所有, 宗玟憂鬱將病, 奚但宗玟? 余亦念舊愴感, 寄此相慰.”

33 黃炳中, 『鼓巖集』卷1.

픈 내면의 어둠을 밀어내고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함께 극복해보자는 시의(詩意)로 귀결된다.

우여곡절 가득한 현실이지만, 정의(情誼)가 넘치면서도 고아(古雅)한 유교적 가문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그는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했을 것이다. 다만 녹록지 않은 현실이, 전처럼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편안한 집’[安室]을 재현하려는 의지와 욕망을 거두게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그의 기대와 소망은 ‘손자’라는 존재를 통해 강력히 피력 되었다.

손자 아이 망구(望久)를 씻기며(洗孫兒望久)

(上略)

원하는 건 겸손하고 공손히 고업(古業)을 지키는 것이나 但願謙恭守古業,
감히 현철(賢哲)이 우리 집에서 나오길 기대도 해 본다네. 敢期賢哲昌吾廬.
향기로운 난탕에 깨끗이 씻겨 조금의 누도 없으니 蘭湯淨洗無些累,
온갖 선과 천진한 취연(粹然)의 시원(始原)을 갖춘 듯하여라. 萬善粹然備厥初.

시는 1917(丁巳)년 2월 16일에 창작된 작품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통상적으로 육아나 양육문제는 여성의 영역에 가깝다고 인식되나, 전통사회의 남성들은 자손들의 성장과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³⁴ 당시 사회는 소위 ‘격대’(隔代) 교육이 통행되고 있었기에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눈길은 더욱 섬세하고 극진했을 것이다. 과거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처음 목욕시키는 의식을 ‘세아’(洗兒)라고 하는데, 처음 아이를 씻기는 날에는 많은 집안 어른들이 모여 서로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³⁵ 난탕(蘭湯)은 난초를 넣어서 끓인 물인데, 과거 향기로운 난초가

34 정인숙(2015), 「가사에 나타난 남성의 자손 양육에 대한 시선과 내면의식」,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p. 192.

35 이때 아이에게 주는 돈을 세아전(洗兒錢)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시를 세아시(洗兒詩)라고 칭한다. 대략 당나라 때부터 이런 풍습이 정착되었다고

불상(不祥)을 물리친다고 하여 단오에 많이 행해졌다고 한다.³⁶ 출산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손자를 향한 그의 기대와 함께, 차마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시에 전연(展延)히 번져가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어린 손자는 세상의 모든 선과 꾸밈없는 지순(至純) 그 자체로 다가오며, 그의 내면에 가득했던 수심과 번민을 잠시 밀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식민지라는 시대의 부침 속에 순탄치 않은 현실을 걸어가던 그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다시 평안한 일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이어갔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그의 가족을 향한 시들은 굴곡진 한국 근대사의 흐름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무력’에 의한 가족의 해체와 식민지배에 따른 친족들의 이산까지를 경험한 그는 목전까지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고, 국가의 멸망에 이어 가문의 영락까지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다. 이와 연관된 가족 관련 시들은 슬픔과 한숨 가득한 애정을 기저로 하면서 통한과 원망 그리고 환희와 비탄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그의 시는 과거처럼 분명 성리학적 세계의 저변에서 작성되었지만,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국난’ 해결을 위해 분투했던 이 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민족사의 비애와 접목되며 한국 현대사와 문학사가 더욱 발굴하고 조명해야 할 유의미한 순간을 작품 속에 녹였다.³⁷ 근대 전환기 한시가 보여준 한계, 즉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의고(擬古)’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해 분투해야 했던 시대적 환경과 자신의 내면을 결합한 것이다.

전한다[이주해(2017),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의 글: 경험과 기록」, 『중국어문학지』 59, 중국어문학회, p. 13].

36 『楚辭·九歌·雲中君』, “浴蘭湯兮沐芳.”

37 이현일(2022), 「20세기 한시의 모험: 20세기 전반기 문화자본으로서의 한시」, 동양한문학회, p. 327.

4. 결론

근대 전환기라 불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 근대사는 미증유의 혼란기라 명명할 수 있을 만큼 복잡다단한 수난의 현실이 켜켜이 축적되던 시기였다. ‘중심’을 잃은 무력한 국가 및 사회는 혼란을 거듭했고, 이들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던 개인들은 스스로 생명과 안위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국가라는 거대한 안전망 체계를 상실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외부의 압력과 폭력을 그저 온몸으로 받으며 버텨내야 했고, 해외로까지 몸을 옮겨 유민(流民)의 생을 자청해야 했다.

황병중과 주변의 삶은 바로 이리했다. ‘신미양요’가 발생한 해(고종 8년)에 태어나 일제 말엽 직전까지 펼쳐진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으로 얼룩진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는 생애였다. 그는 당숙과 동생의 거의로 인해 가족들의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져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고 친척들은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학문적 스승이었던 송병선 그리고 지역의 선배였던 황현은 자결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며 ‘남아있는 자’ 혹은 ‘살아남은 자’의 몫을 충실히 이행해야 했다. 특히 그는 떠나거나 사라진 가족이 아닌 남아있는 가족들만이라도 잘 보호하고 지켜줘야 했다. 그들이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단란하고 고품 있는 가족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까지 노력했고 또 고뇌했다. 시 속에서 그의 가족들은 삶의 회한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고달픈 현실을 극복해 나갈 원동력과 동기, 그 자체로 형상화되었다.

가족들을 지키지 못한 채 죽음의 엄습까지 경험한 바 있는 그는, 옥중에서의 시를 통해 부모를 향한 뜨거운 눈물과 세상을 향한 깊은 원한을 토로했고, 아내와 아이에게는 자신의 유지(遺志)를 담담히 전하기도 했다. 이후 고향에 돌아온 그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았다. 기의를 택한 후 도처를 전전하는 동생을 차마 원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은 더욱 ‘불

초'(不肖)해져갔고, 나아가 집성촌의 유택마저 지키지 못했기에 극단적인 무기력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다. 그는 고된 하루하루를 누구와 보낼지를 고민하며 비탄에 빠지기도 했지만, 가족들과의 재회와 손자의 출생은 이 모든 통함과 비통의 순간을 돌차간에 잊게 만들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열'된 상태에 놓였던 경험과 관련된 그의 시에는, 자신이 속했던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회귀와 결합을 기대하는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지사(志士)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도 상당했지만, 가족과 관련된 시에서 그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으며 형이었고 친척이었다. 결국 그의 시는, 이제 '소수 문학'으로 전락하여 쇠멸의 단계로 나아가던 한문학의 마지막 면모와 함께 유의미한 일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한시'라는 공간 속에 담기지 않거나 작품 너머에 있는, 더욱 모질고 굴곡졌을 지방 민초들의 삶과 내면의 한 단락까지를 가늠하게 만든다. 요컨대 그의 한시는, 곧 근대 전환기의 한시 역시 당대의 지성 및 시대적 과제와 동행하며 '호흡'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자료

『고암집』(鼓巖集)(김남 편, 1983), 『의사 황병학』(진광산업사).
『매천집』(梅泉集), 『운양속집』(雲養續集), 『의암집』(毅菴集), 『후산집』(厚山集).

논저

김동협(2000), 「이황이 지은 행장을 통해 본 그의 출처관과 인생관」, 『동방한문학』 18, 동방한문학회.
김상기(2015),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연구』 51-1,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정·한길로(2023), 「근대 지방 유림의 기행문에 나타난 현실 인식 고찰」, 『한민족어문

학』 101, 한민족어문학회.

- 박준호(2004), 「의암 유인석의 한시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1, 대동한문학회.
- 서정화(2021), 「유교의 禮學的 탐구를 통한 孝 사상 고찰」, 『민족문화연구』 9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유영봉(2017), 「간재 전우가 남긴 철리시 연구」, 『한문학보』 37, 우리한문학회.
- 이동순(2017), 「한국현대사 속의 가족서사」, 『문화와 융합』 39-4, 한국문화융합학회.
- 이미진(2023), 「20세기 쑤주지역 지식인 굴천 이일해, 한시로 쓴 인생의 기록」, 『장서각』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주해(2017),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의 글: 경험과 기록」, 『중국어문학지』 59, 중국어문학회.
- 이진교(2014), 「일제강점기 마을사회의 동향과 동계의 역동성」,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 이현일(2022), 「20세기 한시의 모험: 20세기 전반기 문화자본으로서의 한시」, 동양한문학회.
- 정인숙(2015), 「가사에 나타난 남성의 자손 양육에 대한 시선과 내면의식」,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 정현주(2003), 「이산에 의한 정체성의 문제: 식민과거 기억하기와 정체성 확립」, 『수행인문학』 33,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 조명근(2023), 「근대 이행기 한국 지역사회 변동과 서원의 변용」, 『민족문화논총』 8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길로(2023), 「고암 황병중의 삶과 시 세계 고찰」, 『서강인문논총』 68,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기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한국고전번역원 고전db(<https://db.itkc.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s://db.history.go.kr/>)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An Aspect of the Diaspora
Experience and Family
Love in the Poetry of Traditional
Intellectuals in the Local Regions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Han, GilRo*

In the unprecedented chaos of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traditional intellectuals sought new ways of responding. Yoo In-seok (柳麟錫) proposed three norms to respond to the confusion of the time, the “Chebyeonsamsa” (處變三事). However, there were many intellectuals who responded to the times in their own way. Hwang Byeong-joong (黃炳中) from Gwangyang also responded to the time of chaos in this way. When his family and relatives resisted colonialism, his family had to experience the pain of separation. Afterwards, he was arrested by Japanese police, making it difficult to guarantee his safety. His hometown, which has been preserved for generations, also belonged to others. This experience was reflected in his work, and his feelings were very well revealed at the time. In particular, it described the pain of colonial rule, the sorrow of separation, and feelings toward the family community very realistically. In short, his work is meaningful in that shows the reality of the modern transi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Jilin University

period very well, depicting the pain of that era and the will to overcome reality.

Keywords Hwang Byung-joong, *Goamjip* (鼓巖集), Diaspora Literature, Modern Classical-Chinese Literature, Modern Classical-Chinese Poetry